

## 380억 규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행방은?

지난 4월 27일,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한성학원(이하 재단)측이 380억 규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으로 재단의 수익용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공개질의서를 게시했다. 준비금은 비영리국내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설정한 예산을 말한다. 우리 재단은 교육재단이므로, 고유목적사업은 교육 사업이다.

교협은 질의서를 통해 재단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단이 준비금을 수익용 건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본디 '면세' 대상이었던 준비금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대략 7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11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교협과 학생대표들 간의 간담회가 탐구관에서 개최됐다. 간담회는 교협 회장직을 맡고 있는 고창수(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의 상황 설명, 질의응답, 학생대표와 교협의 공동행동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2면에 계속)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 교수협의회-학생대표 간담회의 김준호 총학생회장(좌)과 고창수 교수협의회장(우)

### 지면안내

보도  
교수협의회 공개질의,  
380억 규모의 재단기금  
사용되나 02

사회  
그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03



사람  
대학생이 바라봐야할  
"지역사회"와 "꿈" 04



문화  
뮤직 페스티벌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 05



학술  
조선시대에도  
빌보드가 있다? 06



오피니언  
의회정, 삼학송 등 07

## 학교, 오찬간담회 비롯한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 확대

지난 522호 <한성대신문>에서 대학본부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학교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2시, 상상관 12층 레스토랑 밀가옥에서 인문대와 상상력인재학부 소속 재학생 10명이 이상한 총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 총장뿐만 아니라 한성학원 이종훈 이사장도 참석했다.

학생장학팀에서 주관한 이번 오찬간담회는 이 총장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점심식사와 티타임을 함께 하며 학생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학사제도나 학교 행정시스템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오찬간담회 계획 초반에는 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논의했으나, 기존에도 대학본부 학생대표들과 주로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소통'이라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반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했다.

특히 이날 티타임에서는 학생들이 이 트랙제도 등 개편된 학사 제도와 그로 인한 등록금 문제, 교내 흡연장 사용 문제, 새로 생긴 창업 지원

시설인 '상상큐브'와 교내 기숙사에 대한 문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주제로 이 총장과 담소를 나눴다.

오찬간담회는 5월과 6월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오찬간담회 진행을 담당할 학생장학팀 김병일 담당자는 "5월에는 사회과학대 학생들과 예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에는 공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학생활을 하면서 평소 말 못할 고민이나 불편한 점이 있는 학생, 학교를 위한 정책 제안 등 학교 발전에 대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오찬간담회 참가자는 인문대와 상상력인재학부 학생 중 선착순으로 10명을 접수받았다. 이에 김 담당자는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인원이 너무 많으면 개개인의 이야기를 모두 듣기가 힘들어 참석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오찬간담회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홈페이지 한성공지란의 모집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 담당자의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선착순 10명에게는 SMS로 안내문이 전달된다.

한편, 학교는 오찬간담회 이외에도 '한성 신문고(가칭)'나 '굿모닝 프레지던트' 등 온라인 소통 창구도

마련 중에 있다. '한성 신문고'는 각종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교내 행정부서 중 신문고를 전달한 부서가 해당 부서로 안전을 전달하고, 실무자가 답변을 마련해 다시 학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학생들이 이 총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설한 메일 계정이다.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학교 발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이 해당 메일계정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이 총장이 메일을 확인하고 조치해 그 결과를 다시 학생에게 전달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naver.com



▲ 오찬간담회를 진행 중인 모습

이명보장·상시모집  
hansungnews@gmail.com  
제보모집

### 기자사령

면  
이한신(경영 3)  
임경익(상상력 1)

임  
정기자 김수현(인문 1)  
김종민(국문 2)  
강예림(사회과학 1)  
이나경(매선 1)  
이혜민(매선 1)

# 교수협의회 공개질의, 380억 규모의 재단기금 사용되나

고유목적사업기금  
(2018년 만료)  
380억 원  
한성학원



지난 4월 27일,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한성학원(이하 재단측)이 380억 규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으로 재단의 수익용 건물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배포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재단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질의가 제시되었다. 교협은 5월 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11일에 이른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미룬 상태다. 또한 5월 11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수협의회와 학생대표 간의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교협측이 공개질의서를 통해 제시한 '한성학원 공문 제17-31호'에 따르면, 재단은 2013년도에 설정된 준비금 380억 원을 월 1억여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250여억 원의 수익용 건물을 구입하고 50여억 원의 법인세 납부 용도로 처분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교협은 해당 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준비금은 비영리내법인이 설정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만일 이 기금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은 교육 사업이다. 수익용 건물을 구매하는 것은 우리 재단의 고유목적에 위배 사용한다

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었던 준비금은 자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교협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재단이 수익용 건물을 구매할 시, 약 7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교협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안대로 기금이 집행될 경우 교육부와 약속한 7억 원 규모의 재단전입금 지급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이 대학에 지급하는 재단전입금 7억 원은 작년 우리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에서 해제될 때 교육부로부터 이행과제로 부여받은 것으로, 만일 이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대학은 다시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다.

5월 11일에는 교협과 학생대표들 간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간담회에는 교협 회장직을 맡고 있는 고창수(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 교수와 총학생회, 총대위원장, 크리에이티브 인문대, 사회과학대, 상상력인재학부, 뷰티디자인학과 대표들이 참석했다.

교협회장은 "교수협의회가 그간 학생조직과의 대화기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운을 떼며, 준비

금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준비금은 2013년에 설정되었는데, 기존 재단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 국가에 의해 '수용(국가가 강제 토지를 취하고 보상금을 지급함)'되면서 생긴 현금자산이다. 재단은 따로 운영 중인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준비금은 재단의 '전재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까지 재단은 380억 원 규모의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었지만, 최근 이어지는 예금 이자 인하 추세로 여의치 않아 지사 수익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 준비금을 사용하면 앞서 말했듯이 세금 징수가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수익이 생김으로써 법인세가 발생하는 등 대량의 자금이 빠져나가 재단의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당면한 재단전입금 7억 원 지급도 미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교협회장의 설명이다. 교협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5월 4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이를 10일로 미루고, 11일에 이른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이다.

교협회장은 "교협에서 교육부 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만일 교육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 경우, 3000인 이상의 서명을 모아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고 교협회장은 이에 대해 학생대표들의 협력을 요청하며, 이 문제에 대해 공동행동을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문제의 해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금은 법적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2013년에 설정된 이 기금은 내년까지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마감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재단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는 상태다. 380억 규모의 기금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정도 재원도 없는 재단이 수익 사업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앞날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교협에서는 '행복가속사 지주회사 인수' 등의 방안을 건의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대학의 운명을 결정하는 2주기 평가라는 거대한 고비가 내년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향후 행방이 주목된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 #한성 #타임라인

### 교내 봄맞이 행사 개최

'교양·취업·소통 삼(三)색의 봄을 즐기다'라는 문화 행사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교양, 취업, 소통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봄을 상징하는 색인 노랑, 초록, 분홍이 각 주제를 대표한다.

이 행사에는 학술정보관, 취업지원팀, 학생지원팀 등 학내 부서와 중앙학생자치기구, 단대학생회, 과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들도 참여한다. 계획된 프로그램으로는 유망 중견·중소·강소 기업을 소개하고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나만 몰랐던 히든 챔피언 특강', '아름다운 봄 여행'을 테마로 하는 여행컨설팅, 캠퍼스 잔디밭에 누워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노천 영화제, 물총 축제 등이 있다. 위 프로그램들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교내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과 같은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다.

대외홍보팀 김동근 팀장은 "이번 행사는 학업과 취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휴식을 얻고,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은강 기자 dbdmsrks73@naver.com

### 교원양성교육과정 심성교육 특강 열려



지난 4월 28일 미래관 ELC에서 '행복한 삶과 진로 및 직업'이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문은식(유아교육과)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 진행에 앞서 신재홍(교원양성교육과정) 교수는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 심성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교직과정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덕목을 갖추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 한국어과정 2017년 봄학기 수료식

지난 5월 10일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2017년 봄학기 수료식이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수료식에는 한국어과정을 수료한 학생들과 김승천 국제교류원 원장, 이상혁 주임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응웬티훙며, 레티환썬 등 2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이날 수료식은 학생 발표회를 시작으로 국제교류원 원장 축하, 수료증 및 성적표 수여, 상장 및 기념품 수여, 공지사향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 발표회에서는 'K-pop 공연', '한국의 사투리 말하기' 등의 공연이 있었고, '이화마을 활동 소개' 등 학생들이 각 반별로 그동안 체험했던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장 및 기념품 수여식에서는 성적우수상 6명, 성실상 11명으로 총 17명이 수상했다.

학생 발표회에 앞서 이 교수는 "수료는 봄학기의 끝을 말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된 좋은 의미"라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나가타이(6급) 학생은 "한국어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혜민 기자 jgo1505@naver.com

## 상상력인재학부 다들 모여! 상상력 토크 개최

지난 5월 2일 상상력인재학부 주최로 '제1회 상상력 토크'의 첫 번째 강연이 미래관 DLC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한경규(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상상력인재학부와 인문학 전공자의 미래와 전망, 사회인식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 참여한 임경익(상상력 1) 학생은 "현재 인문학 수업을 듣고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상상력 토크 강연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상상력 토크는 상상력인재학부 학생들의 전공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로, 총 4차례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강연은 인문, 사회, 예술, 과학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재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연을 들으면 된다. 각 프로그램 참여 시 경품과 비교과 포인트 10포인트가 지급된다.

제2회 상상력 토크는 5월 23일 5시부터 미래관 DLC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최중경(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경쟁력 있는 청년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 하는 예술과 과학에 대한 강연은 2학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

서은경(상상력인재학부) 학장은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 전공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전공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대학 1학년은 오픈 마인드로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 봐야한다. 상상력 토크를 통해 실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상력인재학부는 공모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

에 참여하는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학생들은 봉사, 스테디 등 자유주제로 팀을 이뤄 방학 중에 그룹 활동을 하게 된다. 11월에는 학술대회를 할 예정이며, 그때 잘된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서 학장은 "상상력인재학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각자 전공하는 트랙이 달라 공통 관심사를 지닌 친구를 만나기가 힘들고, 소속감을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학생들끼리 돈독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 동정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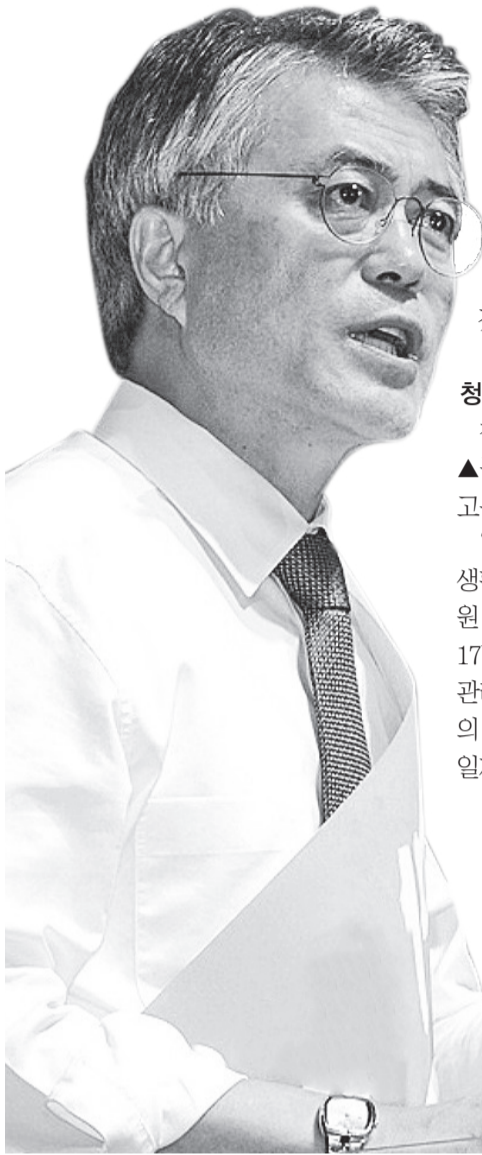
#### 안광준(ICT디자인학부) 교수

안 교수는 지난 5월 1일, 타지키스탄의 타지키스탄디자인예술대학과 디자인 분야에서 본교와 MOU 체결 및 유학생 교류에 관해 협의했으며, 이번 8월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 노광현, 이후진(IT응용시스템공학과) 교수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사)IT여성기업협회가 주관하는 '2017 이브와 ICT멘토링'사업에 노 교수가 지도한 ITS-Hansung팀과 IGOTT팀, 이 교수가 지도한 재래레인저팀이 선정됐다.

# 그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첫 업무시사로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가 오른 11.2%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번 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 정책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이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교원 등 대민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를 신설하고, 기존에 민간이 위탁 관리하고 있던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일자리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64만 개를 공공부문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20~30대를 중심으로 신입 공채를 늘리도록 하는 정책이다.

### 일자리·창업 정책

#### 청년 일자리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 중소기업 청년 3명 채용 시 1명분 임금 정부 지급
-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부는 기업이 청년고용할당제를 불이행할 시 고용부담금 부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부담금을 감당하면서 이를 계속 불이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청년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고용부담금이 적다면 사용자 측에서는 당연히 청년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고용부담금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밝혔다.

#### 청년 일자리 질적 개선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주를 이룬다. 이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를 같이 도입한다. 그런데 이 제도로 청년고용

#### 일자리 질적 개선

- 비정규직 차별 개선
-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 알바존중법 도입
-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
- 3개월 이상 청년 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및 퇴직금 지급

#### 창업 환경 개선

- 연대보증제 폐지
- 신용대출 제도 개선
- 중소기업 및 혁신창업기업의 상품 구매·홍보
- 청년벤처 엔젤 투자 확대
- 청년 창업 시 4대 보험료 지원

할당제처럼 부담금을 물며 비정규직을 계속 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가 민간 영역에서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한다”며 고용부담금제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창업 환경 개선

이번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는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및 혁신창업기업의 상품 구매 및 홍보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의 기초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일

자리가 없으니 청년 스스로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당겨진 대선으로 정책 준비기간이 짧아 이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세부 내용은 다소 미흡하다. 때문에 청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청년연대는 “촛불을 들었던 청년 세대로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 요구 또한 꾸준히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세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더 요구하고, 더 괴롭혀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 대학생 기숙사는 혐오시설?



### 주민들, 외부인에 대한 공포감으로 행복기숙사 건설 반대

지난 2월 15일 성북구청에서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설 허가를 냈다.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지방 출신 학생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행복기숙사는 원래 2018년 1학기 개관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민원으로 공사 일정이 1년이나 늦춰져 2019년 1학기에 개관하게 되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고려대는 2013년도에 학교 부지인 개운산 근린공원 내에 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더불어 주민들이 체육 시설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고려대 측은 학교 내 체육 시설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겠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응봉동 행복기숙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숙사 부지 인근 주민들도 ‘기숙사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행복기숙사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중 몇몇 몰지각한 학생들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성북구 주민들은 공사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소음 발생 등의 문제와 기숙사가 개관한 뒤 생겨날 환경 문제, 유흥 문화 발달, 성폭행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기숙사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광표(성북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동소문동보다 앞서 건축된 흥제동 행복기숙사가 직접 답사를 다녀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해결하고,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성북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공청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한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만을 외쳤다. 성북구청이 대학 주거시설 건립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먼저 대학

주거시설을 건설한 곳에 답사를 가서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줄곧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왜 해결책에도 응하지 않고 반대를 하게 되었을까. 주민들이 외부인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민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0, 50대의 어른들이고, 이들 대부분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이 와중에 외부인들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다 보니, 주민들은 외부인을 달가워하지 않고 배척하려는 경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민들이 외부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대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주민들이 갖고 있는 폐쇄적인 주민관을 없애려면, 대학생들에게도 주민회에 참여할 권한을 주어 대학생들이 외부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 이 기자의 정시사건

## 민주주의의 꽃, 대통령 선거



####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이다.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유권자로 참여하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진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40세 이상의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심중팔구는 ‘선거’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선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인식된다. 특히 대선은 국회의원, 시장, 하다못해 동네 이장까지 선거로 뽑는 시대에서 단연 돋보이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걸출한 후보들이 다채로운 공약들과形形色색의 선전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심지어 술자리에서도 후보 이야기가 안주거리로 올라오니, 이 선거는 하나의 ‘축제’라고 표현되어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대선은 일반적으로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5년을 주기로 치러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탄핵·사망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대선이 치러지기도 한다. 대선은 일반적인 선거처럼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칙에 따라 빈부, 학력, 전과,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확하게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선은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며, 단순히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정치 판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기도 한다.

흔히 우리사회를 ‘1등만 기억하는 사회’라고 많이 표현한다. 흥미롭게도 이 표현은 대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대선의 특성상 1위 후보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때문이다. 특히 ‘몇 표가 차이 나든지 일단 많이 받은 사람이 승리’한다는 명료한 원칙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결국 3%의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 후보 역시 만만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4년을 절치부심해야만 했다. 이런 방식의 선거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받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여론이 나뉘어 국민통합에 지장이 있다는 점과,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막대한 양의 사표(死票)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제와 같은 보완책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은 ‘정치’라는 무대 위에 자신이 원하는 배우를 올리는 ‘감독’이 되었다가,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무대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관객’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정치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위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이라 불리는 지난 정권의 ‘커튼콜’은 우리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야기했다. 과연 이번 정권의 ‘커튼콜’에는 국민이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건투를 빌어본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성북구의회 의장 정형진

# 대학생이 바라보아야할 “지역사회”와 “꿈”

만약 집에 가는 길에 가로등 불이 꺼져있다면, 또 거리를 청소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 깨끗한 거리, 밤에도 환한 골목길 등 사소한 보이지만 없어서 안 될 부분들은 지역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청과 의회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운영한다. 반면 의회는 구청의 활동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 다양한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한다. 두 기관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

때문에 지자체 활동들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지자체의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해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다.

##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 없는 이유는?

최근에는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새로운 형태의 정보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사람들은 이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반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체로 딱딱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지자체의 정보들은 관심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또한 뷰티, 음악, 패션 등의 정보는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와, 독자는 원하지 않아도 이에 많이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반면, 지역사회의 정보는 대학생들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접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요즘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 맛집을 소개하고, 지역명소를 알리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사람인 동시에 수용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시대에 지자체가 만든 정보가 대학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지 못했다면 대학생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겠지요”라

며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이외의 시간에는 과제를, 사람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심지어 졸업을 앞둔 대학생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때문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젊은이들을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교정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도서관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현실의 여유를 느끼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시대가 이렇다고 남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열정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대학생들을 독려했다.

##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학생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현재 성북구청에서 대학생 명예동장, 대학생 명예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제정 조례, 의회 회의 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사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라며, 지자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들과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 활동을 소개했다.

그리고 그는 “성북구의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의회 회의가 열릴 때는 언제든지 방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조례 내용 등을 전달해 주신다면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의견 중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는 의회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본교 대학생들에게 전하는 말

그는 “평균 연령 12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120세라고 하면 스무 살은 6분의 1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인생의 반도 살지 못한 대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리고 대학생 시절은 인생에서 어떤 시기로 볼 수 있을까?

그는 “대학생 여러분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각자의 관심에 따라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이전 많이 퇴색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학은 상아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학업의 깊이를 더하고 전문성을 더할 시기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학업이 직업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흥미롭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진로를 변경하기도 할 것입니다”라며 대학생

시기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대학생 시기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큰 꿈을 꾸어볼 만하지요. 뭐든 할 수 있는 시기, 뭐든 실패할 수 있는 시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시기가 대학생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대학생들의 도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크리에이터 박웅현의 책 『여덟 단어』에 나오는 말처럼 단순하고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때로는 깊이를 만들어 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정답, 오답에 대한 강박을 갖지 마십시오. 바보처럼 단순하게, 내 판단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고,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도전이 허락된 젊은이입니다”라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인생을 즐겁게 살라며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정형진 의장은 대학생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부족했던 점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기성세대로서 사과하며,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독려했다. 또한 지자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들과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 활동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기이고 학생들에게는 자신을 믿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자체 또한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할 때가 아닐까.

이나경 기자

skrud0402@naver.com



QR코드에 접속하면 성북구의회 회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HIGHLIGHTS of CLASSICAL MUSIC



“연주와 해설, 프리젠테이션이 만난, 그야말로 기발한 공연이다”

“이런 공연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본 적이 있었다면, 클래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불멸의 작곡가들의 음악과 인생이야기를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의 연주와 조윤범의 유쾌하고 기발한 강의로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2017년 5월 24일 오후 7시,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입니다.



참여 신청 및 문의 : 학술정보관 (02)760-4281, 5663 kdh0223@hansung.ac.kr

# 뮤직 페스티벌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



▲ <레인보우 아일랜드 뮤직&캠핑 2016>의 한 장면이다.

출처 : 브이유 이엔티

5월, 중간고사가 끝났다. 어깨를 짓눌렀던 시험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필요하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 뮤직 페스티벌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5월, 6월에만 전국에 14개의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하지만 수많은 음악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페스티벌을 고르고 즐기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곳에 가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는 초보자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정리했다.

## 뮤직 페스티벌을 고르는 팁!

### 장소에 주목하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장소다. 페스티벌이 도심에서 열리는지 혹은 교외에서 열리는지에 따라서 공연 분위기가 180도 변하기 때문이다.

도심에는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심 속 뮤직 페스티벌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그리고 화려한 장식과 각양각색의 조명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번 시즌에는 <그린 플러그드 2017> 등 열광적인 무대를 자랑하는 페스티벌이 도심에 포진해 있다. 도시의 화려한 풍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사람에게는 도심 속 뮤직 페스티벌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반대로 교외에서 하는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뛰어난 경관을 볼 수 있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캠핑과 같은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북한강 한가운데 있는 자라섬에서 펼쳐지는 <레인보우 아일랜드 뮤직&캠핑 2017> 등 올해도 다양한 야외 뮤직 페스티벌이 교외에서 열릴 예정이다. 좋은 경관을 보며 음악을 듣고 싶다면 바깥 바람을 쐬러 나가보는 건 어떨까?

### 테마를 살펴보자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테마다. 각각의 페스티벌이 추구하는 테마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점심식사 메뉴를 고민하듯이 관객들은 각각의 테마가 추구하는 맛에 따라 신중하게 자신이 참여할 페스티벌을 결정한다. 뮤직 페스티벌은 음악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감상형 페스티벌'과 사회적인 메시지 등의 테마로 의미를 찾는 '현실 참여형 페스티벌'로 나눌 수 있다.

감상형의 예시로는 <서울 재즈페스티벌>이 있다. 홈페이지에 가면 해당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가수에 대한 설명, 각 뮤지션의 히트 앨범, 음악의 특징 등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초보자들은 미리 가수와 음악에 대한 정보를 알고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페스티벌이 감상형으로 기획되고 있지만, 점차 현실 참여형 페스티벌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린 플러그드 2017>은 모든 홍보물을 친환경 재생 용지와 콩기름 잉크 인쇄 방식으로 제작한다. 또한 일상 속 일회용품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텀블러 캠페인, 사막화 방지를 위한 '40PROJECT'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다.

### 음악에 집중해보자

자신이 어떤 음악에 흥미가 있는지 모르는 초보자들은 위에 설명한 기준만으로 뮤직 페스티벌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자신이 듣기에 좋은 음악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 뮤직 페스티벌은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명한 아티스트를 초청한다. <서울 재즈페스티벌>의 경우에도 재즈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재즈 뮤지션 외에 대중음악 가수들도 초대한다. 따라서 초보자들이 즐기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생소한 음악을 들어보고는 싶지만 낯설게 느껴질까봐 두렵다면, 페스티벌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음악을 찾아 들어보고 흥미가 생긴 음악이 포함되어있는 뮤직 페스티벌을 고르면 된다. 예를 들어 <자라섬 스프링 사운드 페어>는 국내 락 밴드만 모아, 그들의 개성이 담긴 무대를 선보인다. 이곳에 가는 초보자는 현재 국내 락 밴드들이 추구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재미를 한층 더해주는 팁!

### 골라듣는 재미, 타임 테이블

타임 테이블이란 각 페스티벌의 공연시간표를 말한다. 과거에는 지자체가 소규모 음악행사를 여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요즘에는 대규모 '페스티벌'로 진행되어 한 공간 안에 무대를 여러 개 설치해 공연을 하고 있다. 타임 테이블은 페스티벌 안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과 무대를 선택해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취향에 맞는 음악을 골라 듣기 위해 초보자들은 타임 테이블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음악 감상 외의 묘미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체험 부스도 찾아볼 수 있다. 부스는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묘미가 있어 뮤직 페스티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다.

크게는 먹거리부스와 참여부스로 나눌 수 있다. 먹거리부스는 음악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다. <자라섬 스프링 사운드 페어>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레인보우 아일랜드 뮤직&캠핑 2017>의 아트마켓은 참여부스의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서는 예술인들의 개성이 담긴 공예품, 디퓨저 등의 물건들을 판매한다. 더불어 화관, 액세서리 등 장식품을 관객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페스티벌에서는 먹거리, 기념품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

### 재미를 더하는 각종 이벤트

이벤트는 SNS상에서 진행되는 것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린 플러그드 2017>에서는 SNS를 이용하여 '투표 인증 이벤트', '나만의 타임 테이블 만들기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부터 연극 티켓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앞서 말한 <레인보우 아일랜드 뮤직&캠핑 2017>에서는 밤에 빼놓을 수 없는 캠프파이어는 기본이고, 시원한 맥주, 열대 느낌이 물씬 나는 캠페일을 벗삼아 놀 수 있는 자메이카 포레스트레게클럽 이벤트도 개최한다.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라이브 재즈 연주를 들으며 아침잠을 깨는 재즈 카페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처럼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면 음악 감상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제 자신에게 맞는 뮤직 페스티벌을 골라 시험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이혜민 기자

jgo1505@naver.com



### 그린 플러그드 2017

장소 : 난지 한강공원  
기간 : 2017. 05. 20 ~ 2017. 05. 21  
설명 : <그린 플러그드 2017>은 2010년부터 매년 5월 난지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뮤직 페스티벌이다. 주말 양일 진행되는 이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하여 열띤 공연을 펼친다. 개최지가 서울이므로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그린 플러그드 2017>을 만나볼 수 있다.



### 서울 재즈페스티벌 2017

장소 : 올림픽공원  
기간 : 2017. 05. 27 ~ 2017. 05. 28  
설명 : <서울 재즈페스티벌 2017>은 '재즈(Jazz)'라는 주제로 다양한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다. 특히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음악들도 연주하기 때문에, '재즈'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한번쯤 가볼 법한 페스티벌이다. 행사장소가 서울인 데다 마침 <그린 플러그드 2017>의 바로 다음 주에 열린다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참고해두면 좋다.



## 이촌동에서 맛보는 제2의 일본 음식

'리틀 도쿄'라고도 불리는 용산구 이촌동은 강남에 위치한 일본인 학교로의 통학이 용이해 일본인들이 정착하면서 하나의 재팬타운으로 자리 잡았다.

이촌동이 '리틀 도쿄'라고 불리는 데는 일본어로 된 간판을 건 음식점들이 한 몫 한다. 뿐만 아니라, 이촌동에 있는 음식점 중 대다수는 일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조리를 맡고 있다. 정통 일식에서부터 퓨전 일식, 디저트까지 그 종류 역시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인 몇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정통 일본 가정식 전문점 '스즈란테이'. 이곳은 일본인 미타니 마사키 씨가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주방장과 스태프 모두 일본인이다. 가수 윤종신의 노래 <1월부터 6월까지>에 등장해 '이촌동 지하상가 그 뒷밭집'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도시락이다. 밥과 된장국을 기본으로 히레(안심)가스와 치킨가스, 사시미, 일본식 달걀찜 '자왕무시', 일본식 채소절임 '츠케모노' 등이 도시락에 담겨 나오는데, 정통 일식답게 반찬의 가짓수가 적고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미타니 마사키 씨는 "재료와 그릇까지 일본에서 공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 스즈란테이의 대표메뉴 '도시락'

라멘 전문점 '라멘테이'는 단순한 라멘집이 아니다. 일본인 오너셰프가 직접 운영하는 이곳의 대표메뉴는 돈코츠라멘, 미소라멘, 차슈멘인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새롭게 개발한 '매운미소라멘'도 인기메뉴 중 하나다.

이곳에서 매운미소라멘을 맛본 박대우(21) 씨는 "일본라멘은 국물에 기름이 많이 떠 있어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의외

로 담백하고 얼큰해서 입에 맞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곳에서는 칠리새우, 일본식 탕수육, 상하이 야키소바 등 일본식으로 재탄생한 중화요리도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먹던 중식과는 또 다른 느낌의 중식을 즐길 수 있다. 단, 일본식 중화요리는 디너에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메뉴와 시간을 잘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자고로 식사는 디저트까지 먹어야 마무리 되는 법. 이번에 소개할 '교토마블'은 데니쉬(Danish, 덴마크의) 식빵 전문점이다. 혹자는 '데니쉬' 식빵을 팔면서 왜 '교토'마블인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데니쉬 식빵은 교토에서 100년 가까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빵이다. 특히 교토마블의 데니쉬 식빵은 교토의 유명 베이커리 '보로니아' 출신인 황인상 파티시어가 직접 만든 64점의 페스츰리 식빵이다. 세 가지 맛(딸기, 녹차, 플레인)이 혼합돼 보기에 좋고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삼색'부터, 촉촉하고 담백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플레인'까지 골라먹는 재미도 있다. 식후 디저트로 즐기기에 풀 사이즈가 다소 부담이 된다면 하프 사이즈 구입도 가능하다.



▲ 교토마블에서 구입한 하프사이즈 플레인 데니쉬 식빵

매번 똑같은 형태의 일식이 지겹다면 이제는 이촌동으로 가보자. 정통 일식은 물론, 한국화한 일식, 일본화한 중식, 일본에서 전통 있는 덴마크 빵까지, 기존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일식도 만나게 될 것이다.

강예림 기자

kyr\_0728@naver.com



▲ 미소된장을 풀어 국물을 낸 라멘테이의 '미소라멘'



### 레인보우 아일랜드 뮤직&캠핑 2017

장소 : 자라섬  
기간 : 2017. 06. 03  
설명 : <레인보우 아일랜드 뮤직&캠핑 2017>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올나잇' 페스티벌이다. 자라섬에서 캠핑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 페스티벌은 단지 음악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캠프파이어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만일 하루쯤 음악과 함께 밤을 지새고 싶다면 이 페스티벌을 추천한다.



### 자라섬 스프링 사운드 페어

장소 : 자라섬  
기간 : 2017. 05. 26 ~ 2017. 05. 28  
설명 : <자라섬 스프링 사운드 페어>는 다채로운 락(Rock) 뮤지션이 포진해있는 뮤직 페스티벌이다. YB, 부활처럼 일반인에게 친숙한 락밴드부터 헤비메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마련된 노래들은 국내 마니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이 페스티벌은 순수 한국 뮤지션들로 공연이 구성되어 있으며, 점차 쇠퇴해가는 K-Rock의 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조선시대에도 빌보드가 있었다?

『빌보드(Billboard)』, 우리에게 '빌보드 차트'로 유명한 『빌보드』는 사실 음악순위 집계기관이 아니라 음악잡지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빌보드 차트'는 말그대로 음악잡지인 『빌보드』가 집계한 음악순위인 것이다. 만약 『빌보드』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면 어떨까? 어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모습과 다소 괴리감이 있는 가정이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판 빌보드'라고 할 법한 책이 있다. 바로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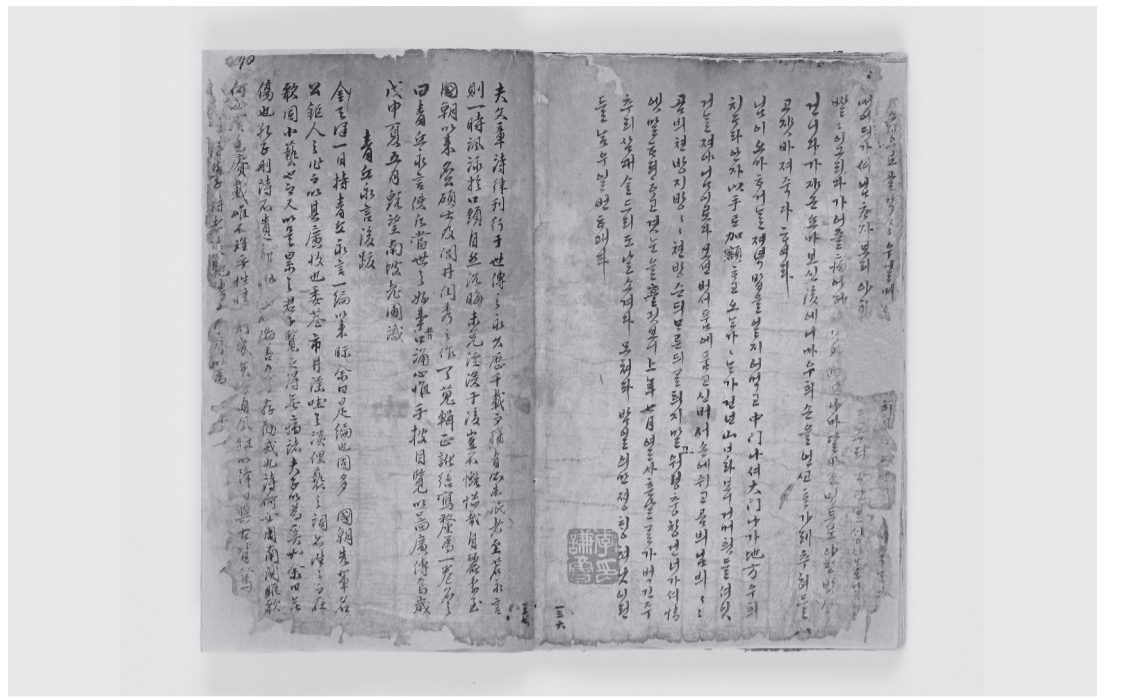
때는 조선시대, 당시 트렌드를 선도했던 한양에서는 '가곡'이라는 음악 장르가 일대 대히트를 기록하고 있었다. 가곡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음악 장르로, 초기에는 상류층이 즐겨 들던 '클래식'이었으나, 시대가 지나고 리듬이 빨라지면서 하위 계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됐다. 가곡은 전문가의 보컬과 그 패들의 연주로 구성되었는데, 리더의 역할을 맡는 전문가 1명을 위시로 하여 최소 6명의 인원이 모여 가곡을 불렀다. 현재로 말하자면 '밴드(Band)'인 것이다. 대인원이 모이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런 가곡의 특징 때문에 한 명이 부르기가 쉬운 형태의 '시조'라는 장르가 파생되기도 했다.

이런 시기에 전문가격으로 활동했던 김천택은 가곡들이 기록되어 전해지지 못하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1728년 『청구영언』이라는 저서를 완성한다. 이 책은 당대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던 '유행가'들을 모두 집대성한, 조선 최초의 가집이었다. 김천택이 이 책에 저술한 가곡의 양은 상당히

방대한데, 고려 말의 명반부터 당대에 창작된 최신곡까지 총 580여 수의 작품을 수록했다. 지금이야 매일 수천 곡의 음악이 쏟아져 내리는 시대지만, 당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가히 '조선의 빌보드'라는 명칭이 아깝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청구영언』이 가곡을 분류하는 방식 역시 『빌보드』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빌보드』는 음악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매번 35가지 분야의 순위를 집계·발표한다. 이와 흡사하게 김천택은 수백 수의 가곡을 책에 정리하면서, 상당히 세세한 방식으로 가곡들을 분류하여 기록했다. 가곡의 악곡은 대엽(大葉)이라고 하는데, 초기의 가곡은 느린 장단인 만대엽(慢大葉)으로 연주됐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만대엽보다 더 빠른 중대엽(中大葉), 중대엽보다 빠른 삭대엽(數大葉)으로 유행이 흘러갔다. 김천택은 가곡들을 이 장단의 속도로 1차 분류를 한 다음, 당시 최신 유행하던 삭대엽 계열을 대거 수록하며 고려시대, 조선시대, 침금, 여항인, 구수, 무명 등 각 곡의 특징들을 시대와 창작자에 따라 예리하게 잡아내어 상세 분류를 했다. 『빌보드』와 견주어도 전혀 꿰치지 않을 정도의 카테고리 개수인 것이다.

『청구영언』에는 다소 낮부끄러운 내용의 곡들도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김천택은 이를 '만황정류'라고 하며, 당대에 전해지던 가곡이라면 무엇 하나 버리지 않고 수집했다. 해당곡들 역시 당대에 유행했던 것이나, 당대 조선이 유교 사회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남녀상열지사'를 수록한 김천택은



▲ 실제 '청구영언'에 실린 김천택의 글

대중음악의 가치에 눈뜬 최초의 지식인일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이런 영향을 받아 『청구영언』 이후 발간된 조선 3대 가집 중 하나인 『해동가요』에서는 양반들이 창작한 점잖은 퇴폐시들이 실리기도 했더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런 모습들은 당시 조선사회가 점차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 말부터 창작자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가곡이라면 모두 수집한 책인 만큼, 이 책에서 한번쯤 들어보지 못한 가곡이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정몽준의 '단심가'와 이방원의 '하어가'부터, 최영이나 이성계와 같은 무장,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과 같은 명공(名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이

당대 상황을 노래하는 가곡들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책의 저자인 김천택은 당대 가곡을 짓거나, 부르기도 하는 '심어 송라이터'이자,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중인 출신의 여항인, 한편으로는 왕족과 중인 계층의 전문가까지 두루두루 왕래하는 시대의 풍운아였다. 그는 왕족부터 전문가에 이르는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이름 높은 양반들의 고상한 가곡부터, 저잣거리에도 나도는 낮뜨거운 가곡까지 대규모의 가곡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걸 생각하면 『청구영언』은 아마도 김천택이라는 인물이 아니었다면 영영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굳이 '조선시대판 빌보드'라고 부를 정도로 『청구영언』의 영향력 역시 뛰어나다. 20세기까지

편찬된 가집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청구영언'이라는 제목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의 신하영 학예연구사가 김천택을 "가집편찬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청구영언』과 김천택이 우리 한 국문학사에 남긴 족적은 거대하다. 이쯤되면 '조선시대의 빌보드'가 아니라 『빌보드』를 두고 '미국의 청구영언'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만일 '조선시대의 빌보드'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9월 3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에 찾아가면 친절 한 설명과 함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 흥미가 있는 사람은 서두르도록 하자.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 성북구 이야기

### 흥망성쇠를 겪은 흥천사 이야기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아리랑고개 쪽으로 가다 왼쪽 길로 접어들어 언덕을 오르면 아파트에 둘러싸인 흥천사가 보인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빼어난 역사가 숨겨져 있다. 흥천사는 조선 태조임금이 신덕왕후를 정릉에 모시고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397년 정릉 옆에 창건한 절이다. 태종 때 정릉을 현재 자리인 북한산 기슭으로 옮겼지만, 흥천사는 이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심 안에 남아있었다. 태종은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사찰의 토지와 노비 수를 제한하고, 전국에 242개 절만 남기고 없앴으며, 사찰 재산을 몰수했는데, 흥천사를 잘 보호하라는 태조의

유언덕분에 흥천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 후 세종도 흥천사를 관아 건물처럼 정기적으로 중수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31년(1449) 6월, 가뭄이 계속되자 이 절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며칠 후 비가 내려 세종이 승려 140명에게 상을 내렸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이 절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유학(儒學)을 장려하면서 왕실의 지원이 줄어들어 흥천사는 쇠락하기 시작했다. 연산군 때는 화재로 절이 거의 타 버렸지만 복구되지 않았다. 폐허로 방치됐던 흥천사는 중종 때 유생들이 이단을 쓸어버리겠다고 밤에 불을 질러,

그나마 남아있던 건축물까지 전소했다.

흥천사가 역사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선조 때 절을 옮겨 짓고 '신흥사'라 이름을 고친 후부터다. 이후 정조 때 새롭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지원으로 절을 중창한 뒤 다시 흥천사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이때 대원군이 손수 '흥천사(興天寺)'라고 써준 사액현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흥천사의 건축들은 모두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흥천사의 대방(염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복합 법당), 흥천사 대종, 42수 금동전수관음보살좌상은 국가 지정 문화재이고, 극락보전과 명부전은 지방문화재다.

지금의 흥천사는 기본적인 사찰의 업무를 하는 동시에 복지 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흥천사의 주지인 정관스님은 "현재의 흥천사는 불교 신자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귀의처로, 시민들에게는 휴식처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 교수님의 책갈피

### 환경이, 문명을, 만든다

『총, 균, 쇠』  
이상혁 교수의 추천도서

“『총, 균, 쇠』는 인류 문명 발달의 역사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이 개성적으로 인문학을 보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킹스맨>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Manner, maketh, man)'는 대사는 그 장면의 화려한 액션과 더불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명대사로 손꼽힌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 듯이, 문명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명저 『총, 균, 쇠』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환경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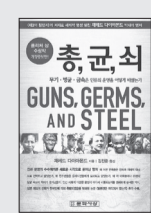
지구본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구대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은 좌우로 면적이 넓으며, 반면 신대륙(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은 상하로 면적이 넓다. 이는 곧 유라시아 대륙은 위도가 비슷해 기후가 똑같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위도에 따라 위도가 천차만별이므로 '기후가 상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총, 균, 쇠'를 개발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구대륙의 인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야생상태의 벼나 밀, 콩의 종자를 심어서 작물화시켰으며, 이를 주변국에 전파했다. 구대륙의 문명들은 기후가 서로 비슷하므로 작물들을 타문명에서 재배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반면 신대륙에서는 뒤늦게 옥수수, 감자를 재배한 후, 위도로 인한 기후차 탓에 작물 전파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가축' 역시 주목해야 하는 대상이다. 구대륙에서는 닭, 소, 말, 돼지, 양 등을 가축화시키고 전파시켰지만, 신대륙에는 가축화가 될 만한 동물이 거의 없었다. 또한 같은 기후 후권인 구대륙보다 상이한 기후를 가진 신대륙의 문명들은 서로 교류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유럽은 일찍이 종이와 화약을 중국에서 받아들였지만, 신대륙의 문명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다.

문명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대량의 식량 생산은 결국 신대륙과 구대륙 사이의 문명 격차를 발생시켰고, 유럽은 '총'이라는 무기와 '쇠'라는 재료 그리고 가축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한 '균'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럽은 신대륙을 개척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럽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인종적 우월성'이 아니라 '환경적인 이점' 덕분이라는 것이다. 대량운송기술과 인터넷으로 전세계가 물질적·정서적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현재, 책에서 주장하는 '환경적 이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이 문명을 만드는 시대 이후에는 대체 무엇이 문명을 만들게 될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환경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가 문명 발전을 이룩하는, '사람이 문명을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총, 균, 쇠』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출판사: 문학과사상  
출판일: 2005. 12. 19.

책 소개: 『총, 균, 쇠』는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달하고 '총, 균, 쇠'가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책은 문명의 발달이 인종이 아닌 환경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의화정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에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LTE)와 플랫폼(스마트폰)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해외에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안에서 편안히 은행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앞서 적법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사용자 인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방식이다. 여기서 비밀번호는 제3자가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로서 사용자를 안전하게 인증하는데

### 편의성과 보안의 상관관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요즘 들어 비밀번호를 정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6자리의 비밀번호도 통용됐지만, 요즘에는 최소 10자리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 소문자, 대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까지 포함돼야 한다. 이 규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안을 위해 편의성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필자는 해당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가장 좋은 예로 Apple iPhone 5S에 처음으로 적용된 지문인식 기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지문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지문을 지문인식 센서에 가져가서 인증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Apple

의 경우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동작시키기 위해 눌러야 하는 홈버튼에 지문센서를 탑재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인증과정을 위해 부가적으로 지문센서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노력을 절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 발매된 갤럭시 S8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인증이 되는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는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하게 인증되는 기술들이 더욱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어려운 비밀번호 기억문제도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여유를 갖고 새로운 기술을 기다려보길 권유드린다.

서화정(IT응용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자수첩

지난 5월 4일, 5일에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사상 최고 투표율인 26.06%를 기록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연령대는 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50대, 40대, 30대 순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20대로서 참 기쁜 일이다.

이번 투표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시작됐다.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평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탄핵을 외쳤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 20대의 긍정적인 변화

많은 학생들이 국정 농단에 분노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일어난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탄핵시위에는 대학생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촛불집회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여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13개 청년단체와 대학생들은 서울 동송동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었다. 탄핵 시위 이후 20대의 적극적인 참여는 투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위의 집계처럼 투표율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대선 연령별 투표율에서 항상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다.

제18대에서는 20대 투표율이 68.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제17대 대선에서도 20대의 투표율은 46.6%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선의 연령별 최종 투표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사전투표 결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변한 20대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 행사는 곧 사회에 대한 참여의지다. 따라서 20대의 사회 참여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곧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20대의 참여의지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점차 변화하는 20대가 자랑스럽다.

이혜민 기자 jgo1505@naver.com

### 낙산에 올라

우리학교 곳곳에는 두 개의 통이 설치되어 있다. 하나는 일반쓰레기통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수거함이다. 하지만 쓰레기통에도 납작 종이컵과 플라스틱 커피 컵, 과자포장지 같은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품들이 분별없이 버려져 있어서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율은 15.9%로 OECD 2위다. 하지만 1위인 독일의 0.5%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상당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작은 국토 때문에 쓰레기 매립할 땅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타고 남은 잔해는 미세먼지가 되어 우리의 코와 입속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

### 미세먼지로 되돌아오는 잘못된 분리수거 문화

대부분은 좋은 재활용 대상이다. 가령 납작 종이컵은 분리수거가 가능한 종이류로 코팅지 해리작업만 거치면 고급폐수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잘못된 분리수거로 인해 폐기 처분되는 종이컵은 20년 된 나무 130만 그루에 해당하는 양이다.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된 쓰레기들은 환경파괴의 주범이 된다. 미처 분리수거하지 않은 플라스틱 컵들이 매립되면 자연 분해되는데 적어도 100년이 걸린다. 빵과 과자 포장지는 비닐류로 재활용이 되는데, 이때 음식물을 분리해야 한다. 음식물만 잘 분리한다면 훌륭한 재활용품이 되지만, 음식물이 분리되지 않고 붙어서 썩는다면 일반쓰레기로 폐기처분되어 지구를 오염

시킨다. 현재 우리학교 분리수거함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글귀나 안내판이 없다. 이런 무관심함이 학생들이 분리수거 가능한 물품들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이유가 된다. 독일이 쓰레기 재활용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색깔별로 구분해놓은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분리수거함이 워낙 많아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심코 버릴 수 없게 만든다. 물을 사마시듯, 공기도 사서 숨 쉬는 세상이 도래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아름다운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

전여울(영문 5)

### 삼학송

### 내 머릿속의 권위주의

지난 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었다. 사회 통합, 외교 갈등 조정, 경제문제 해결 등 수많은 문제가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가 먼저 말한 것은 권위주의의 청산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어서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지녔던 권위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대통령 취임사의 첫머리가 권위주의의 청산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 사이에 침투한 권위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권위주의가 다른 문제들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권위주의가 여러 폐단을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권위 이외에 다른 것들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영화 <터널>을 보면 장관이 등장하자 터널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야 하는 소방대원들까지 청소와 브리핑에 동원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 사회에서 의견을 강조하는 것이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장관’이라는 직책이 지닌 권위 앞에서 피해자의 생사나 구조의 효율성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는 공무원 사회와 같은 거창한 사례를 들지 않아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우리학교에서도 선배에게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인사하는 학생들과 인사를 똑바로 안했다고 화를 내는 재학생들이 자주 눈에 띈다. 선배라는

권위에 기댄 대학사회의 잘못된 풍조다. 이번 학기에 한양대학교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있었던 일차려 문제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있었던 재학생 군기 논란 등의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런 폐단이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옮겨간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한쪽은 가해자, 다른 쪽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뿐 아니라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역시 권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종하던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다시 권위를 내세우고 강요한다. 우리사회가 지금껏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권위가 곧 권력이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세대가 넘어가면 권위주의는 대물림 될 뿐이다.

취임사 나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고, 퇴근길에 시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다고 해서 권위주의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권위에 끊임없이 회의하고 투쟁해야만 권위주의의 청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는 대통령의 포부처럼 내 머릿속의 권위주의와 과감하게 결별해야 할 때다.

박종민 편집국장 toad1013@naver.com



제11회  
사진공모전

찰칵, 예술이 되나



응모 기간

4월 1일(토) ~ 5월 24일(수)  
오후 6시까지

참가 대상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학부 · 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공모전 주제

자유(주제의 제약이 없음)

응모 방법

사진공모전 신청서와 작품을 한성대신문사에  
직접 제출(사진은 8×10 크기로 인화)

작품 제출 장소

한성대신문사(학생회관 제1별관 2층)

사진공모전 신청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문사 방문 수령 가능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524호(6월 5일 발행)

상금

최우수상(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가작(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문의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박종민 편집국장 010-6425-4852

- ※ 1인당 3점의 작품에 한해 받습니다.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 사진공모전 신청서를 작성해 응모작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 ※ 제출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최우수상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